조문·재보선 지원 유세…대선주자들 호남행 러시

고건 전 총리가 16일 오후 고 홍남순 변호사 빈소에서 조문하기 위해 국화꽃을 받아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가운데) 전 대표가 15일 고 홍남순 변호사 빈소가 마련된 구 전남도청에 들어서고 있다.

텃밭민심 지켜라

광주 찾은 고건 前총리 민주 부대표 박시장 만나 정계개편 소용돌이 대비?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고 홍남순 변호사의 빈소를 잇따라 찾는 조문 정치를 통해 호남 지지세 확보에 나서는 동안 호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고건 전 총리도 16일 홍남순 변호사의 빈소를 찾았다.

고 전 시장은 이날 빈소에서 "선생은 의연한 행동으로 민주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며 "선생이 실천했던 그 뜻은 우리들 마음에 남아 영원히 어둠에서 길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고 전 총리의 행보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조문 후 바로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났기 때문. 지난 5·13 지방선거 전이 한창이던 5월 초 고 전 총리가 박 시장(당시는 후보)을 만난 적은 있어도 당선 후 만남은 처음이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비공개로 박 시장을 찾으려 했으나 일부 기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 시장이 장례위원장이어서 시민장을 잘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호남정치 향방을 주도하는 광주의 시장을, 그것도 민주당 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시장을 만났다는 점은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후 5시부터 15분 정도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고 전 총리와 박 시장은 안부 인사, 경제살리기 진척 정도 등 일상과 광주시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

하지만 고 전 총리 측에서 이날 만남을 먼저 요청했고 최근 지지도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박 시장과의 만남은 겉으로 드러난 대화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즉, 더 이상 지지도가 떨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텃밭을 보다 확고히 하는 한편 언젠가 닥칠 정계개편의 소용돌이를 대비한 지지세력 늘리기 또는 다지기 차원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민심 잡아라

손학규·박근혜·이명박 경선 앞둔 한나라 주자들 광주 빈소 방문 '조문정치'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호남표심 잡기'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호남 표심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호남행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대부격인 홍남순 변호사 타계가 계기가 돼 일종의 '조문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테이프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끊었다. 손 전 지사는 타계 첫날인 지난 14일 분향소를 찾아 "광주 정신이 사라졌다"고 애통해 했다. 이어 "후배들이 앞으로 어른의 과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100일 민심대장정' 92일째를 맞던 지난달 29일에도 광주시립인광치매병원에서 투병 중이던 홍 변호사를 문병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빈소를 찾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하고 세계사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 분의 노력과 헌신, 희생 등으로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그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극한 대척점에 있었던 홍 변호사의 빈소를 찾은 것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의 화해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표는 또 18일 전남 지역을 방문, 화순, 신안, 해남·진도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홍 변호사의 빈소를 찾는 것은 물론 17일 발인까지 함께했다. 이에앞서 14~15일에는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을 해남, 진도, 신안에 보내 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오는 19일에는 광주를 다시 방문, 20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조찬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순천서 순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운영의 성공 사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필요하면 北 방문 김정일과 회담"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 日 회견

차기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취임 후 필요하면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할 뜻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반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일본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의 해결을 위해 "사무총장이 직접 활동하도록 요구받을 때 북한을 방문,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등 필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한이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를 즉각 거부한데 "극히 유감이다. 회원국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는 또 안보리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한 입장과 함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제공한 것에도 북한은 유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핵실험은 두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좀더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DJ, 혼신의 반격

"긴장·대결은 비극…美 대화 나서라"

강연회…외신 인터뷰…연일 강행군 28일 목포 방문 '시국 구상' 밝힐 듯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령과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타개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햇볕정책의 창시자로서 자신의 필생의 업적인 남북화해가 북한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퇴임 이후 정치적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던 종전 태도와도 정반대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 한반도의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의 '목포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잇단 강연과 정치인들과의 면담,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 핵 실험 문제와 관련, "대화와 교류로 풀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는 대북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것을 호소했다. 또 국내적으로는 "대북 포용정책 포기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목포 방문은 물론, 서울대, 한양대에서의 강연도 예정되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남대 강연에서는 "미국은 악마와도 대화해야 한다"며 미국측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으며, 14일 미국 CBS TV와의 회견에서도 '대북교류협력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6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간 협상의 시동을 걸기 위해 (미국의)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협상이 북핵위기를 푸는 열쇠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대북 특사론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처럼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북한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 여부를 떠나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 당선 이후 고향 방문을 극히 자제해왔던 김 전 대통령이 28일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 주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것도 이례적이다. 김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북 제재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국내외의 기류에 대한 자신의 착잡한 심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외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국면 타개와 관련한 최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모종의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평생을 통일 문제에 헌신해 온 김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한반도의 위기는 '일방적인 제재가 아닌 대화와 교류로 풀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추론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비극은 분당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한 점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반도의 위기라는 절박감이 노령의 김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평생을 통일에 헌신해왔던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 한반도 위기 국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